

2013년 1/4분기 제조업 동향과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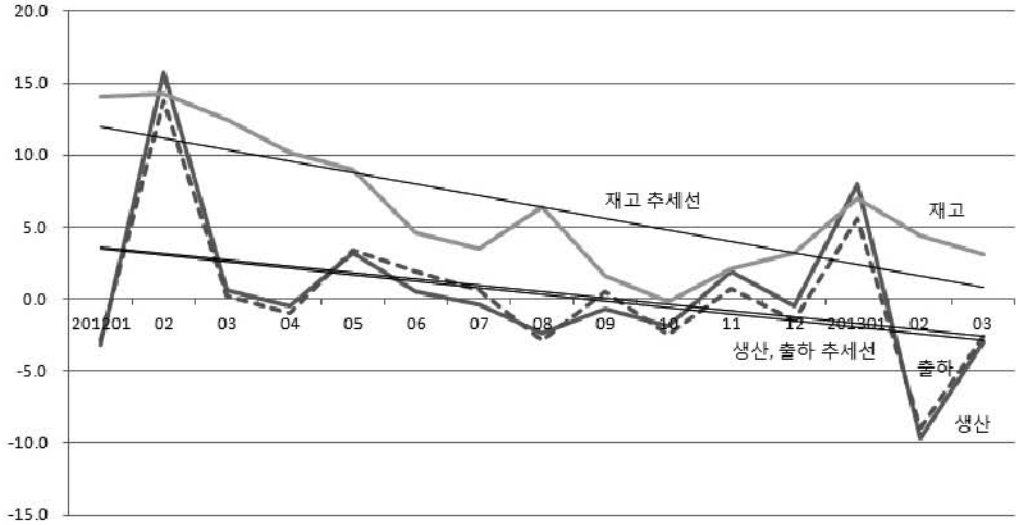
장윤종(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센터 소장)

1 2013년 1분기 산업동향

■ 개 관

- ◎ (생산) 1/4분기 수출과 내수 모두 부진하여 제조업 생산·출하 감소
 - 전년동기대비 생산 -1.7%, 출하 -2.1%, 재고 3.1% 기록(전기대비 생산 0.9% 감소, 한은은 1.4% 증가 발표하여 경기에 대한 판단 혼란)
- ◎ (수출) 1/4분기 수출은 글로벌 경기 부진에 따른 수요 감소로 0.4% 미미한 증가세
 - 10대 주력산업의 수출은 IT업종의 증가세 회복 및 주력시장에서의 경쟁력 회복에도 불구하고 전통 주력업종의 수출 부진 및 일부 엔저의 영향으로 0.1% 소폭 감소세
 - 수출 +, 생산 + : 가전, 반도체, 석유화학
 - 수출 +, 생산 - : 정보통신기기, 디스플레이, 섬유, 자동차
 - 수출 -, 생산 + : 조선
 - 수출 -, 생산 - : 일반기계, 철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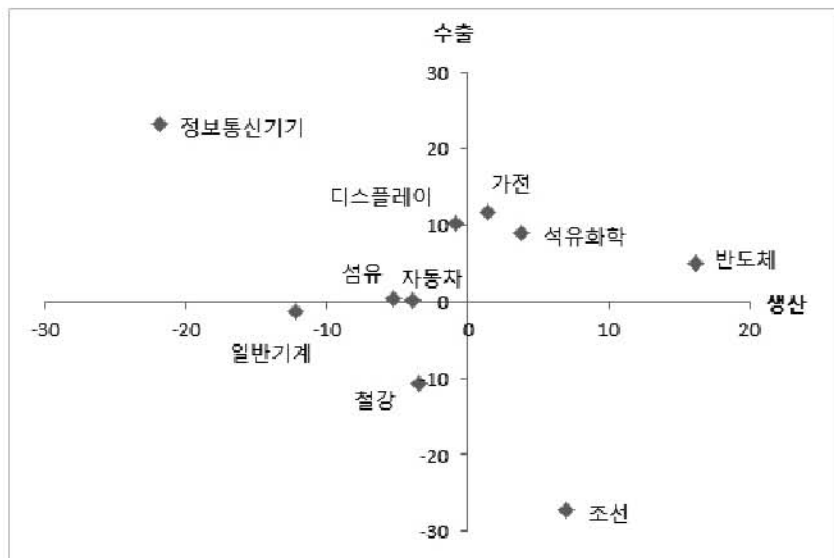
[그림 1] 제조업 생산·출하·재고지수 증감률 추이



자료: 통계청.

[그림 2] 2013년 1/4분기 주력 제조업 생산·수출 증감률

(단위: 전년동기비 %)



자료: 통계청, 무역협회.

■ 업종별

◎ 수출, 생산 증가 그룹

- (반도체) D램의 가격상승 및 국내 스마트폰 업계의 글로벌 시장 확대와 모바일용 저전력 고효율 반도체의 경쟁력 강화로 수출(5.0%), 생산(16.2%) 증가
- (가전) 내수부진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엄 가전 수출 확대(11.8%)로 생산 증가(1.4%)
- (석유화학) 미국, 중국의 수요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(8.9%)에 힘입어 생산 증가(3.8%)

◎ 수출 증가, 생산 감소 그룹

- (디스플레이) 고부가가치 패널 수요 증가에 힘입어 수출 증가(10.2%)하였으나 패널 가격 약보합세와 내수 부진으로 생산 감소(-0.9%)
- (정보통신기기) 신흥국의 스마트폰 수요 증가 및 기저효과로 수출 큰 폭 증가(23.2%)하였으나 내수 부진 및 모바일기기의 해외생산 확대로 생산 감소(-21.9%) (수출, 생산 통계간 불일치 문제 존재)
- (자동차) 부품 수출 증가했으나 엔저에 따른 일본 소형차 강세로 수출은 0.1% 보합세, 생산은 국내 수요 부진과 주간연속 2교대 근무전환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 등으로 감소(-3.9%)

◎ 수출 감소, 생산 감소 그룹

- (일반기계) 수출은 중국의 경기 회복조짐에도 불구하고 건설 중장비 등의 재고물량 누적, 선진국 경기침체 지속, 엔저 영향으로 다소 감소(-1.3%). 생산은 국내 경기침체에 따른 설비투자 부진, 중국·미국·EU 등 주력시장 수출 감소 영향으로 큰 폭 감소(-12.2%)
- (철강) 수출은 공급과잉·유통재고 확대로 국제가격 약세 지속, 엔저 영향, 중국 철강수요 회복 부진으로 큰 폭 감소(-10.7%). 생산은 국내 투자 부진, 수요산업의 생산 위축, 가동률 조정 및 설비합리화 영향으로 감소(-3.5%)

◎ 수출 감소, 생산 증가 그룹

- (조선) 수출은 드릴십, LNG 등 고부가가치 선박 인도 지연으로 금액기준 감소 (-27.3%), 생산은 통계청의 가중치 조정(해양플랜트 비중 상향 조정) 영향으로 다소 증가(7.0%)

〈표 1〉 2013년 1/4분기 산업 동향

(단위: 전년동기비 증가율)

	2011	2012	2013.		2013. 1/4	주요 요인	
			3/4	4/4			
생 산	자동차	14.6	-0.1	-11.6	-2.3	-3.9	↓국내수요 부진, 근로시간단축, 수입차 판매급증
	조선	2.9	4.9	8.9	6.4	7.0	↑재정위기 전 수주물량 집중 건조로 다소 증가
	일반기계	9.1	-2.2	-2.6	-9.9	-12.2	↓국내 설비투자 부진
	철강	7.9	0.6	3.8	-3.6	-3.5	↓가동률조정, 설비합리화, 수요산업 생산 위축
	석유화학	3.6	4.0	5.3	3.6	3.8	↓수급조정, 시설보수, 수요 부진
	섬유	2.1	-2.4	-3.7	-2.6	-5.3	↓내수부진
	가전	-1.2	1.2	0.2	7.0	1.4	↑스마트TV수요 ↓소비부진
	정보통신기기	-7.5	-12.9	-23.2	-14.0	-21.9	↓내수부진, 해외생산 확대
	디스플레이	-3.9	-2.1	-0.3	5.6	-0.9	↓패널가격 약보합세, 계절적 비수기
	반도체	27.0	8.1	1.2	20.2	16.2	↑D램 가격상승, 시스템반도체 호조
수 출	자동차	25.8	5.0	-5.7	-0.8	0.1	↑부품수출확대 ↓엔저영향, 완성차 수출 감소
	조선	15.1	-29.7	-46.9	-37.3	-27.3	↓저선가 선박인도, 선박인도연기
	일반기계	26.9	4.6	1.9	-1.1	-1.3	↑신흥국 수출 호조 ↓중국, 선진권 수요 부진
	철강	33.3	-3.9	-14.8	-9.3	-10.7	↓국제시황침체, 제품단가하락, 엔저
	석유화학	27.6	0.6	-6.0	6.8	8.9	↑중국, 미국수요 회복, 기저효과
	섬유	14.6	-2.1	0.0	-3.4	0.5	↑동남아 수출확대, 중국수요 회복
	가전	4.0	-5.2	-4.9	2.2	11.8	↑프리미엄가전 수요증대 ↓엔저
	정보통신기기	-1.1	-16.7	-14.9	17.7	23.2	↑스마트폰 수요 호조, 기저효과
	디스플레이	-7.0	1.3	6.0	6.8	10.2	↑고부가가치 패널·TV용패널 수요 확대
	반도체	-1.1	0.6	-1.3	6.8	5.0	↑모바일기기용시스템반도체수요증가, 메모리반도체 가격상승

주: 1) 생산은 통계청의 산업활동동향조사, 수출은 한국무역협회 통계.

2 2013년 하반기 전망

- 반도체 · 일반기계 · 석유화학 호조, 철강 · 가전은 부진 예상
- ◎ (업종별 수출) IT업종 수출 확대 지속 및 주력시장 경기진작에 힘입어 10% 가까운 증가세 예상
 - 수출 호조 예상업종
 - 모바일기기용 시스템반도체, 고부가가치용 패널, 프리미엄 가전, 스마트폰 등 IT 제품의 경쟁력 강화 및 견조한 수출 증가 지속
 - 미국, 중국 등 주력시장의 수요 회복에 따른 일반기계, 석유화학의 수출 증가
 - 신흥국의 스마트 모바일기기 및 섬유소재 수요 호조
 - 조선은 2010년 하반기 이후 집중 수주한 초대형 컨테이너선, LNG선 인도 시작으로 상승기조로 전환
 - 수출 부진 예상업종
 - 자동차는 SUV의 중국 등 현지생산 시작과 엔저에 따른 일본 소형차 강세로 수출 둔화
 - 철강은 중국 철강수요 회복 부진, 국제시황 및 가격 약세 지속
- ◎ (업종별 생산) 하반기 생산은 수출·내수의 완만한 회복으로 5% 미만의 증가세 예상
 - 생산 호조 예상업종
 - 일반기계, 석유화학, 디스플레이의 수출 주도, 섬유는 내수 주도, 모바일기기는 수출과 내수 증가에 힘입어 생산 증가
 - 생산 부진 예상업종
 - 자동차는 국내 수요 부진과 노동시간 단축 등으로 생산 증가세 둔화, 조선은 수주 잔량 감소, 철강은 수요 부진 등으로 낮은 증가세
 - 가전은 스마트TV로의 교체 등 증가요인에도 불구하고 기저효과로 저조

〈표 2〉 2013년 하반기 산업전망 기상도

(단위: 전년동기비 증가율, %)

	2012년		2013년 1~3월		2013년 하반기	
	생산	수출	생산	수출	생산	수출
자동차	-0.1	5.0	-3.9	0.1	☁	☁
조선	4.9	-29.7	7.0	-27.3	☁	☀
일반기계	-2.2	4.6	-12.2	-1.3	☀	☀☀
철강	0.6	-3.9	-3.5	-10.7	☁	☁
석유화학	4.0	0.6	3.8	8.9	☁	☀☀
섬유	-2.4	-2.1	-5.3	0.5	☁	☁
가전	1.2	-5.2	1.4	11.8	☁	☁
정보통신기기	-12.9	-16.7	-21.9	23.2	☁	☀
디스플레이	-2.1	1.3	-0.9	10.2	☁	☀
반도체	8.1	0.6	16.2	5.0	☁	☀

주: 1) 전망: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기준, -10% 이하 ☁☁, -10~-5% ☁, -5~0% ☁, 0~5% ☁, 5~10% ☀, 10% 이상 ☀☀

2) 생산 실적은 통계청의 산업활동동향조사, 수출 실적은 무역협회.

3 주요 산업 이슈 점검

◎ 원고/엔저 영향 및 대응

- 최근의 원/엔 환율의 급락은 과거와 달리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엔화 약세가 더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, 최근 글로벌 경기 부진에 따른 해외수요 부진으로 대일 경쟁이 더욱 격화 예상
- 향후 엔/달러 환율 상승세는 완화될 것으로 보이나, 원/달러 환율 하락기조에 따라 원/엔 환율 하락세는 2013년 내내 지속될 것으로 전망
- 엔저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나라 수출산업 구조 및 수출경쟁력 결정요인 변화, 한·일간 제품차별화 진전 등으로 과거에 비해 축소
 - 반도체, 디스플레이에서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, 조선에서는 한·일간 제품 차별화(우리나라는 LNG선, 해양플랜트 등 고부가가치 선박, 일본은 벌크선이 주력 품목)

※ 실증분석 결과, 원/엔 환율의 1% 하락은 당해 연도 수출을 약 0.18% 감소 초래, 1차년도 이후부터 수출에 추가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(산업연구원)

〈표 3〉 엔저의 업종별 영향

	수출/생산	엔저 영향 특징	한일경쟁 상황		
			경쟁 품목 및 강도	경쟁시장	
영향 업종	자동차	69.6%	· 채산성 악화 · 수출 감소	소형차 ● 중형차 ○ 대형차 ○	미국, 유럽, 중동
	철강	42.9%	· 가격인하 압력 증대 · 수출확대 어려움 · 대일 수입 증가	판재류 ● 강관류 ○ 봉형강류 □	중국, ASEAN
	가전	44.1%	· 채산성 악화 · 가격인하 압력 증대 · 수출 소폭 감소	디지털TV ● 조명기기 ● 음향기기부품 ○	미국, 중국, EU
	섬유	52.0%	· 채산성 악화 · 수출 소폭 감소	화섬사 ○ 화섬직물 ○	중국, 베트남
비영향 업종	일반기계	33.1%	· 대일수입 부품가격 인하에 따른 비용절감 · 수출 둔화	건설기계 ○ 공작기계 □	미국, 중국
	석유화학	41.3%	· 직접적 영향은 미미 · 채산성 악화 · 대일 수입 증가 (IT기기용 소재)	환식탄화수소 ○ 합성고무 ○ 합성수지 □ 합섬원료 □	중국
	조선	87.8%	· 수출품목 차별화로 영향 미미 · 기자재, 소재 수입 단가 하락은 긍정적 · 기자재 대일 수출 급감과 내수시장 일부 상실우려	일반상선 □ 해양플랜트 □ 조선기자재 ○	- 대만, 미국, 노르웨이 - 국내, 중국, 일본 (기자재)
	정보통신기기	휴대폰 74% 정보기기 79%	· 주요제품 경쟁우위 및 해외생산 확대로 수출 영향 미미	휴대폰 □ 휴대용PC □	중국, 미국, EU
	디스플레이	90%	· 한일간 경쟁관계 미약 · 소재 및 장비의 대일 수입은 수익성 개선에 기여	TV용 패널 □	중국
	반도체	85%	· 제품 차별화로 영향 미미	메모리 □	중국

주: 1) 수출/생산 비중: 자동차와 철강은 물량기준(2012년), 가전과 섬유는 금액기준(2011년 산업연관표)
2) 경쟁 강도: 한·일간 경쟁이 매우 치열 ●, 중간 정도 ○, 경쟁 미미 □

- 수출기업의 채산성 악화, 가격인하 압력 증대, 수출 감소 등 엔저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
 - 생산 대비 수출비중이 40% 이상으로 높고, 주력 수출 시장 및 경쟁 품목이 일본과 상당부분 중첩되는 자동차, 철강, 가전, 섬유 등 4개 산업
- 원고/엔저 기조 장기화에 대비, 정부는 국제금융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급격한 환율변동을 억제하는 노력과 더불어 엔저로 인한 국내기업의 피해 방지 방안 모색 필요
- 기업도 엔저를 수출구조 고도화와 비가격부문의 장기적 경쟁력 확보, FTA 활용을 통한 대응, 일본 소재 부품기업 M&A 추진 등 대일 수출 경쟁력 재편을 위한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

◎ 국내 투자 활성화

- 국내 설비투자는 최근 지속적으로 위축되어 왔으며, 2013년 역시 작년에 비하여 저조할 것으로 조사
 - 2012년 1분기 이후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 기록
 - 2013년도 국내 설비투자 계획이 127.9조 원으로 2012년의 129.7조 원 대비 1.4% 감소될 것으로 예상(정책금융공사)
- 반면, 기업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내외 경기침체 및 수요 부진으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현금성 자산보유 증대
 - 제조업 유동자산증가율: (2007) 14.7% → (2009) 10.0% → (2011) 12.1%
- 설비투자를 제약하는 불확실성 등 구조적 요인을 제거하는 중장기적 관점의 대응 필요
 - 창조경제 구현을 통한 창업 활성화, 중소기업의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여건조성 및 지원, 새로운 성장동력 육성 등을 통해 국내 투자기반 확충
 - 특히 창조경제 이행 시 새로운 성장원천으로 부상하고 있는 지식기반자본(특허 및 지재권, SW, 빅데이터, 디자인 등 무형자산) 대한 기업의 투자 활성화 대책 마련 (최근 OECD의 지식기반자본 논의와 정책대응 참고)

- 30대그룹의 투자약속 실현을 위한 적극적 정책지원
 - 4.5일 산업부-30대그룹 사장단 간담회에서 제시된 대기업의 투자계획(설비투자 91.1조 원, R&D 29.4조 원)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의 정책지원 뒷받침
- 그밖에 신산업 육성지원, 국내 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외국인 투자유입 촉진, 국내기업의 U턴 지원, 중견기업 육성 등 필요